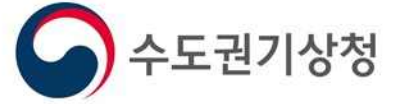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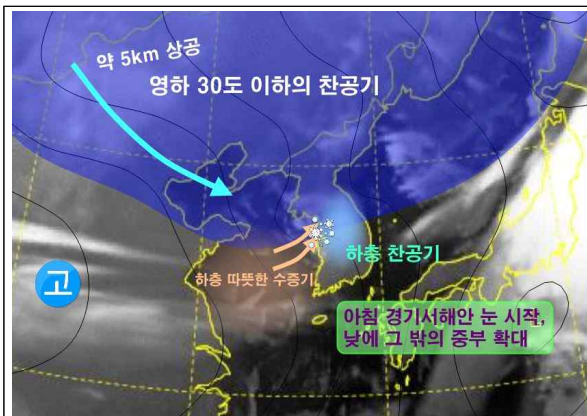
설명자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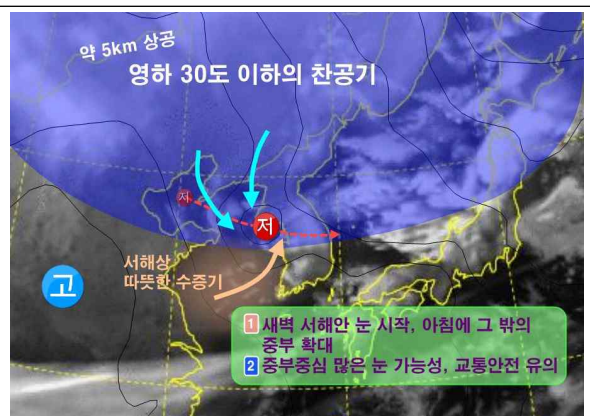
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17. 11. 22.(수) 14:20 (총 3매) | 보도시점 | 즉 시 |
| 담당부서 |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| 담당자 | 과장 정종운 예보관 김용범 |
| | | 전화번호 | 070-7850-8220 070-7850-8240 |

23(수능일)~24일 수도권 중심 눈, 수험생 교통안전 유의!

- 23일(목) 아침 서해안 중심, 오전 그 밖의 지역 확대 1cm 내외
- 24일(금) 서울·인천·경기도(경기남부 제외) 1~5cm, 경기남부 3~8cm
- 다음 주 초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, 추위



11월 23일(목) 예상 기압계 모식도



11월 24일(금) 예상 기압계 모식도

【 기상 전망 】

- 수능일인 23일(목)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경기북부에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음
- 특히, 아침에는 서울과 경기도(경기서해안 제외)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, 서해안과 일부 경기북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음.

또한,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수험생들의 시험장 교통길 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람

- 24일(금)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에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되어 아침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, 오전에 그치겠으나, 오후 한때 다시 눈이 내리겠음
- 약 5km 상공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서해상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접근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음
- 특히, 24일(금) 새벽부터 아침에는 지상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고,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,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

※ 예상 적설

| | |
|-----|--|
| 23일 | - 서울·인천·경기도(아침~낮), 서해5도(새벽, 밤): 1cm 내외 |
| 24일 | - 서울·인천·경기도(경기남부 제외), 서해5도: 1~5cm - 경기남부: 3~8cm |

- 한편, 25일(토) 오후~26일(일)에는 다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됨
- 26일(일)까지 일본 북동쪽 부근에 발달한 상층 고기압(약 5km 상공)이 정체하면서, 우리나라 부근으로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자주 통과함에 따라 잦은 날씨변화가 예상됨

[잦은 날씨변화의 원인과 전망]



< 기압계 모식도 >

[기온 전망]

- 우리나라 약 5km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고, 주기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, 다음 주 초까지 평년 보다 기온이 낮겠고, 24일(금)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,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 바람

[해상 전망]

- 23일(목)은 서해중부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음. 24일(금) 오후부터 서해중부해상은 점차 물결이 낮아지겠으나, 26일(일)은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,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 바람